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남북평화통일기도주일 : 오늘은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1:30 시작)

기획위원회 : 오늘 오후 1:10 세미나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8월 예배 안내 : 8월 한 달간은 주일오후 청파성서학당과 수요일저녁 성경공부를 합니다.

신앙실천 :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왕상 3:3-14 / 시 111	2부	전 8:9-17
예배	엡 5:15-20 / 요 6:51-58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이선화 정영란 박석희 홍성식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최미자 유상진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 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제11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70년 전 식민지배의 어둠이 드리워졌던 이 땅에 자유의 밝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단과 반목의 짙은 어둠이 이 땅을 오래토록 감싸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 다시 한 번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시오.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의 빛을 비취주시시오.

주님, 이 땅의 교육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차야 할 교육의 현장이 여러 폭력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기준과 가치, 철학을 잃어버리고 안일함과 그릇된 욕망으로 뒤틀린 교육현장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 교 독 문 101. 나라사랑(3)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목회기도 박홍재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70.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 ♣ 성경봉독 I. 삼하18:5-9 엡4:25-5:2 요6:41-51 김윤하 선생
 II. 사 6:11-16 권미숙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대
- 말 씬 I. 아버지의 마음으로 김재흥 목사
 II.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순배	고속이	곽상준	최경미	곽정자	구명자	권미숙	권미정	김근중
정옥영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남중	오복순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승현
김수진	김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정자현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혜리	김필순
김현주	문금석	문복순	민지희	박기영	박상규	박시내	박인혁	박창운	허정윤
배삼순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윤영미	이건우	이계숙	이동천	이미휘	이범석	류정욱	이상준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찬희	장미경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조순덕	조지연	주은경	한규숙	한상경	한상의
정영선	현진	홍성식	이유리	홍순구	안홍숙	무명			

감사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신철	이혜경	김태정	문복순	박재영	박창운	허정윤	박철국
이숙자	이광재	이승지	이은혜	전인섭	조헌권	박아영	최준혁	한우리	유하영
홍성식	이유리	무명7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송희원 윤미경 윤수진 이미휘 이은주 무명8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쉽	쉽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여름에는 저녁을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마당 위에는/ 멍석
멍석 위에는/ 환한 달빛
달빛을 깔고/ 저녁을 먹는다

숲 속에서는/ 바람이 잠들고
마을에서는/ 지붕이 잠들고

들에는 잔잔한 달빛
들에는/ 봄의 발자국처럼
잔잔한/ 풀잎들

마음도/ 달빛에 잠기고
밥상도/ 달빛에 잠기고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가득 차는 달빛

아! 달빛을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 오규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역사가 늘 제자리인 듯, 때론 뒤로 퇴보하는 듯 보여도 주님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 함께:	아멘. 시대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할 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의 길을 만들고 계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근종 권사	박민선 선생 권순집사

8	영접위원	윤석철 최철수 정원석 백혜숙 김금순 강순배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믿음으로 읽는 글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북남공동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모진 박해를 견뎌낸 이날, 우리 민족은 해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들은 남과 북/북과 남, ‘평양과 서울’/‘서울과 평양’ 어디에서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그날의 합성이 심장에 메아리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 못지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올해로 분단 세월이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간 유대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자기 조국으로 귀향했는데, 우리는 곧 오리라는 통일의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임의로 오갔던 육로도, 철도도, 뱃길도 지금은 모두 막혀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풀씨와 나무 열매도 남과 북/북과 남에 갇힌 채 부자유한 채 지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날의 해방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삼천리금수강산 온 누리에서 통일의 합창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한결같듯 70년 동안 이 땅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종종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기대했지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 동맹의식이 공고해 집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군사 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이 민족이 스스로 살 길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며, 함께 화해와 협력을 높이는 일인데 미련한 우리는 답을 더욱 견

고히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70년을 기다려온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속히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 흰 옷 입은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와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화해의 소문이 동해와 서해 사방으로 물결치고, 평화의 소식이 백두산을 넘어 유라시아로 제주도를 건너 태평양으로 큰 바람 되어 퍼져나가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